

“코로나 막바지” vs “3년 더 간다”

코로나 종료 두고 진단 백가쟁명
낙관론자 “확진자 곧 줄어들 것”
신중론자 “빨라도 내년봄 일상복귀”

미국에서 코로나19 대유행이 언제 끝날지를 놓고 여전히 중론이 잡히지 않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000만명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 비율이 절반을 돌파했는데도 델타 변이의 기습으로 4차 재확산에 직면한 상황이다.

공정론을 제기한 쪽은 “중반전에 접어들었다”는 진단을 내세운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립대의 모니카 간디 교수는 “9월 중반이나 후반부터 확진자가 급감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 바이러스가 의학 교수에게나 고된거리가 될 것이며, 공

중보건에서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진단의 근거로 역대 호흡기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및 자연적 노출로 면역이 형성되면서 종식됐던 전례를 들었다. 특히 바이러스가 인체 면역을 뚫고 변이를 거듭하긴 하지만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스스로 약해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올여름 미국을 강타한 델타 변이가 코로나19 위력의 정점을 찍은 것이라고 간디 교수는 짚었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의 이지키엘 이매뉴얼 교수는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에 있다”면서 “인류는 불확실성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에게 2~3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현재 상황에 안심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하루에 1000명 정도가 숨지고, 수많은 아이가 입원한다. 이는 일상 복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백신 거부가 이어지는 상황으로 볼 때 미

국인이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시점이 최소 2022년 봄은 돼야 하며, 이보다 훨씬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이매뉴얼 교수는 내다봤다.

다만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에 끝이 있다는 견해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수많은 전염병이 풍도병이 되는 것으로 마무리됐으며, 이는 전염병이 응급 상황이 아니라 독감이나 감기 같이 일상에 등장하는 상황으로 끝난다는 뜻이라고 WP는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런 날은 언제 올까. 일각에서는 이미 코로나19가 비상 상황은 지났다는 진단을 제기하고 있다. 스탠퍼드대 제이 바타차리아 교수는 “이 질병의 비상 사태는 끝났다. 코로나19를 200개 질병 중 하나로 다뤄야 한다”면서 이런 일상 복귀의 동력이 백신에서 나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백신으로 고통자, 기저질환자 같은 취약층에서 사망 및 입원을 줄인다는 점에서 “대단한 성과”를 냈으며 “전염병의 종착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콩고민주공화국 기니의 수도 코나크리 거리에서 시민들이 무장한 군인과 함께 쿠데타를 환호하고 있다. 이날 쿠데타를 주도한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마마디 톱부아는 기니군 정예 특수부대를 앞세워 일파 콩데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정부 해산과 군부에 의한 과도정부 구성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

아프리카 기니 쿠데타...대통령 억류 정부 해산

무장군, 전국에 통금령 발령

유엔, 무력에 의한 정부 장악 규탄

서아프리카 기니의 수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알파 콩데 대통령이 무장 특수부대 병력에 억류됐다. AP와 AFP, 로이터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오전 기니 수도 코나크리의 대통령궁 인근에서 대규모 총격전이 발생했다. 수도 중심가에서는 총격 소리가 들리고 곳곳에서 무장 군인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목격됐다.

쿠데타를 주도한 프랑스 외인부대 출신 마마디 톱부아는 기니군 정예 특수부대를 앞세워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국영 TV에 나와 정부 해산과 군부에 의한 과도정부 구성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또 추가 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전국에 통금령을 발령하고 6일 오전 11시 과도 정부 내각회의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톱부아는 “우리는 더 이상 한 사람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

게 정치를 맡길 것”이라며 “군인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쿠데타 세력이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했는지를 비롯해 집권파를 통제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기니 국방부는 쿠데타 직후 대통령 경호팀과 군대가 공격자들을 제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0년 기니 최초 선거에서 집권한 콩데 대통령은 지난해 3선 연임하며 장기 집권을 선언, 국민의 지지를 급속도로 상실했다. 실제 이날 코나크리 시내 곳곳에선 쿠데타를 축하하는 시민들의 모습이 일부 목격되기도 했다. 기니는 1958년 프랑스 식민 통치에서 독립 이후 장기 독재와 군부 통치가 이어지는 오랜 정정 불안에 시달려 왔다.

유엔 사무총장은 쿠데타 시도를 규탄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트위터에서 “기니의 상황을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무력에 의한 정부 장악을 강력히 규탄하며, 알파 콩데 대통령의 즉시 석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남부 칸다하르 출발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내리는 가운데 탈레반 대원이 경계를 서고 있다. 미군 철수 후 운영이 중단됐던 아프간 카불 공항의 일부 국내 노선 운항이 전날부터 재개됐다. /연합뉴스

탈레반 “저항 거점 판지시르 완전 장악” 승리 선언

주정부 건물에 탈레반 깃발

휴전 제안 NRF “계속 싸우겠다”

탈레반이 6일 아프가니스탄 저항군의 마지막 남은 거점인 북부 판지시르를 완전히 장악했다며 승리를 선언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이날 “이 나라의 완전한 안보를 위한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 판지시르주는 탈레반의 완전한 통제 아래 있다”고 발표했다.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면 탈레반 대원들이 판지시르 주도 바자라크의 주정부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주정부 건물에 ‘탈레반 깃발’이 내걸린 사진도 SNS에 퍼

졌다. 아직까지 탈레반과 전투를 벌여온 저항세력 ‘아프간 민족저항전선(NRF)’의 패배 인정 발표는 없다.

NRF는 아프간의 ‘고부’로 불리는 고(故)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 아흐마드 마수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암울라 살레 제1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야신 지아 전 아프간군 참모총장, 정부군, 소수민족 군벌이 힘을 합쳤다.

탈레반은 저항군이 투항을 거부하고 협상이 결렬되자 판지시르로 밀고 들어갔고, 3일 함락 성공을 선언했다. 하지만, 당시 NRF 지도자 마수드는 “거짓말”이라며 계속 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레반은 5일에는 “판지시르 주도 바자라크 인접 지역을 함락시켰고, 바자라크에서는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고, 이날 ‘장악 완료’를 선언

한 것이다.

앞서 NRF는 “저항군 대변인 파힘 다시티(Fahim Dasthi)와 압둘 우닷 자라 장군이 순교했다. 그들은 영웅히 기억될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파힘 다시티 대변인은 2001년 9월 9일 마수드의 아버지 아흐마드 샤 마수드가 숨진 자살 테러 현장에서 살아남았던 인물이다.

마수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NRF는 탈레반이 판지시르와 안다랍에 대한 공격과 군사작전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휴전,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제안했다.

NRF의 휴전 제안을 두고 저항군이 열세에 처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탈레반이 승리를 선언함에 따라 저항군의 추가 반격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연합뉴스

일본 차기 총리 고노 급부상...선호도 1위

유권자 47% “스가 퇴진 당원”

일본 최대 일간지의 차기 총리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당상이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요미우리신문은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응답자 1142명)를 한 결과, 응답자의 23%가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정치인으로 고노 담당상을 선택했다고 6일 보도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21%,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2%,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이 11%,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5%로 뒤를 이었다. 요미우리의 직전 지난달 7~9일 여론조사 때 차기 총리 선호도는 이시바 전 간사장 19%, 고노 담당상

18%였는데 이번 조사에서 역전됐다.

고노통신이 4~5일 일본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총리로 어울리는 인물은 누구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31.9%는 고노를 선택했다. 2위는 26.6%의 선택을 받은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18.8%로 뒤를 이었다.

이번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 지지율은 31%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9월 내각 출범 이후 가장 낮았다. 스가 총리의 퇴진 선언 관련 질문에는 47%가 “당연하다”고 응답했지만, 39%는 “그럴 필요 없었다”고 답했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6%로 직전 조사 대비 4%포인트 상승했고,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7%로 같은 기간 2%포인트 올랐다.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행복이벤트

응모기간 2021년 3월 8일 ~ 12월 31일 **추첨** 2022년 정기총회(22년 1월 예정) **행사대상** 신규 및 기존 거래자
응모방법 유니온 정기적금개설, 체크카드20만원 이상 이용, 출금자동이체, 신탁공제가입, 공공금자동이체 및 계좌이동제, 신탁계후카드발급, 사업자 결제계좌, 연금자동이체, 사회적 예탁금 등
* 중복응모가능, 동일 항목당 최대 2매까지(응모방식은 창구방문)

파워정기예탁금 I형, II형

12개월 연 1.7%

18개월 연 1.77%

2020년도 출자금 배당률

2.97%

출자금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고 조합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며, 출자금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1)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신 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2) 이 금융상품을 계약 하시는 경우 상품에 관한 중요사항을 설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예탁금 및 저금은 신탁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 4) 조합 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비과세종합저축 가능합니다.
- 5)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 시 약정금리보다 낮은 중도해지 금리가 적용됩니다.
- 6) 금융상품 관련 상담 및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 영업점 및 아래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세공과금(22%)은 당 신탁이 부담하며, 경품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신탁영업점 및 홈페이지 등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등**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1명
- 2등** LG퓨리케어 공기청정기 2명
- 3등** 제주도 2박3일 숙박이용권 5명
- 4등** 키친아트 에어프라이어 15명
- 5등** 테팔 세프드프랑스 프라이팬 100명

문흥본점 (광주 북구 문흥로 38) **266-4150**

매곡지점 (북구 설죽로 315번길) **572-4150**

양산지점 (북구 양산로 55) **573-4150**

침단지점 (북구 침단로 91번길2-2) **576-4150**

운암지점 (북구 북문대로 88) **528-4150**

동광주지점 (북구 동문대로 187) **264-4150**

동림지점 (북구 북문대로 238) **513-4150**

각화지점 (북구 동문대로 283, 285) **263-4150**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신협중앙회 심의필 제2021-6호(2021.05.28), 유효기간 2021.12.31까지